

감귤 열매 안 맺히는 원인은 '자근'

농촌진흥청, 만감류 묘목 생산 시 주의 당부 접목 높이 땅 위로 6~10cm 심으면 예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에 이어 '황금향'에서도 수량을 떨어뜨리는 '자근' 발생을 확인했다며, 묘목을 생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당부했다.

수확 시기가 늦은 만감류 품종은 탱자나무 대목(밑나무) 위에 감귤 접수(가지)를 접붙여 묘목을 만든다. 이때 탱자나무가 아닌 접수에서 나온 뿌리가 '자근(自根)'이다. 감귤나무에 자근

이 발생하면 꽃과 과일 맺는 양이 줄어 전체 생산량도 줄게 된다.

조사 결과, 이번에 처음 자근이 발생한 황금향 나무는 나무 세력이 강해지고 주간부(원줄기)가 굵어지며, 꽃 맺음(착화)과 과일 맺음(착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근이 발생했던 다른 만감류 처럼 대목이 땅 위로 0~3cm 정도만 나오게 낮게 접붙인 곳과 아예 대목을 재배지 땅에 묻

은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한라봉(부지화), 천혜향(세토카), 레드향(감평), 황금향(에히메28호)이 우리나라 전체 만감류 품종(3,922ha)의 91.8%를 차지하는 만큼, 만감류 묘목을 생산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땅 위 6~10cm 높여서 접을 붙이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도 대목이 땅 위로 6~10cm가량 충분히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근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자근을 일줄기(주지)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계톱 등을 이용해 잘라낸다.

잘라낸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 상처 부위가 2차로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한재우 소장은 "주요 만감류의 수량을 떨어뜨리는 자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심을 때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만감류 자근 발생 원인과 생리를 담은 책자와 홍보지를 보급하고 교육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약 40여 농가가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을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높이는 데 기여 할 것”

김대수 신임 조달품질원장 취임



신임 조달품질원장에 김대수(57)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이 임명됐다.

26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신임 김대수 원장은 상반기 품질관리 실적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도 조달품질원이 공공 조달시장의 품질지킴이로서 “부

담·불성실 기업의 진입은 차단하되, 성실하고 우수한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수 원장은 1991년 재무부에 임용된 후 재정경제부, 조달청 조달교육담당관, 비서관, 전북지방조달청장, 원자재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조달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친화력이 뛰어나 동료 및 상·하간 신망이 두둑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LX, 국내 공간정보기업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공간정보리더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화)가 국내 공간정보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간정보기술시장에 진출한다.

LX는 지난 24일 오후 자카르타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지적정보 인프라 통합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행사는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 토지청 가브리엘 트리위와와 (Gabriel Triwitawa) 기획협력과장, 데니 산토(Deni Santo) 기획협력과장, 아우 나디아리아니 (Ayu Nadriyani Surtjo) 기획협력팀장, 최원준 LX글로벌사업처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해 LX는 국내 공간정보기업 2곳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LX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의 토지정보 종합 환경 현황조사,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로드맵 제시, 토지정보 등록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전문 인력 역량강화 계획 수립 등을 내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최창화 사장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이 지난 24일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윙스타' 5기 발대식을 진행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타항공,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윙스타' 발대식 진행

미션 · 다양한 홍보활동 진행... 활동 종료 시 국제선 항공권 포상 범위 확대

이스타항공이 지난 24일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윙스타 5기(이하 윙스타) 발대식을 진행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윙스타 5기는 'Flying is Type, ZE5959, Estavelysh, Easy Start, ESTYPE' 등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이름을 내걸고 7월부터 3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2030과 소통할 수 있는 SNS 콘텐츠 제작 및 바이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이스타항공의 오프라인 홍보, 해외노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한 미션

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이스타항공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윙스타 5기의 활동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윙스타 5기 대표 한성희 군(27)은 “윙스타 5기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 같다”며, “최근 항공 여행 트렌드인 LCC에 대해 대학생의 시각으로 더 잘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관객을 대상으로 생수와 홍보용 부채를 전달하고,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홍준기 지부장은 “각종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농촌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과 각종 체험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며 휴가철 농촌 마을 방문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말 완주군 관내 팜스테이마을에서 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실익증진 위해 최선을”

전북농협, 상반기 종합업적 1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농협이 지난 24일 2019 상반기 종합업적 평가 결과 사무소 부문과 지역본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종합업적 평가는 크게 교육지원, 상호금융, 관리부문으로 구성되며, 전북농협은 전 부문에 걸쳐 만점을 달성했다.

지역본부장 평가는 교육지원과 경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무소장 역량을 겨냥한 한 것으로 유재도 본부장은 ▲국민의 농협 가치 전파 및 홍보를 위한 농민신문 활용 ▲농자작물 전환사업 ▲지자체협력사업 등 다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유재도 본부장은 “상반기 종합업적 1위 달성에 최선을 다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반기에도 종합업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전북농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임업진흥원 협약 체결

식품중소기업 육성 통한 산업 시너지 ·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분)은 25일 한국식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과 청정임산물 발굴, 식품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유통·연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 수행과 함께 식품연에서 추진 중인 안심먹거리 제공 및 식품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 도모를 위하여 마련됐다.

앞으로 식품연은 한국임업진흥원과 ▲청정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정보 공유, ▲임산물 가공 기술, R&D 및 실용화 기술지원, ▲유망 임산물

가공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경영체 공동육성, ▲기타 양 기관의 관심 분야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청정 임산물 발굴 등을 통한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어 관련 산업에 대한 시너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원장은 “임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건강한국 실현에 기여하는 한국식품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홍준기)는 휴가철을 맞아 24일 한옥마을 일대에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협 임직원 10여명이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객을 대상으로 생수와 홍보용 부채를 전달하고,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홍준기 지부장은 “각종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농촌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과 각종 체험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며 휴가철 농촌 마을 방문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말 완주군 관내 팜스테이마을에서 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